

일생에 걸친 경력관리를 통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기초연구

정 영 금(가톨릭대학교 교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일-가정의 균형, 혹은 일-생활의 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가정들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가정 균형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가정 균형의 주체는 가정 자신이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이나 부부, 가족원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의 정책을 활용하고 그들이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가정 균형에 대한 연구 역시 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서 부부 혹은 개인이 경력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방법들을 제안함으로써 가정이 일생에 걸쳐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력관리 개념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노동을 분담하고 경력을 관리하는 유형과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는 가정의 장기적인 생활설계를 통해 경력을 관리하고 일-생활 균형에 도달하는 전략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경력관리와 부부들의 노동분담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경력관리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과거의 전통적인 경력관리가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사다리형이었다면 현대의 경력관리는 서로 다른 경로와 영역을 넘나드는 격자형의 경력관리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형태는 지향하는 방향이나 문제해결방법이 다르며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점점 영역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만 달려가는 성공과 달리 새로운 경력에 대한 대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가정 균형사회로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가정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체제에서 탈피하여 맞벌이가정의 비율이 증가해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일-가정을 분담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 일과 가정생활에 그들의 관심과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은 가정마다 다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일과 가정에 각자 영역별로 좀 더 집중되어 있거나 부부 모두 일에 몰두하거나 가정에 몰두하는 등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상형, 전이형, 제로섬형, 분리형 등으로 구분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력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생활이 통합된 형태로 변화하면서 일생에 걸쳐 다양하게 조합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과 가정의 통합과 균형이 일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계획되어야 하며 부부의 일과 가정이 동시에 계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일-가족 갈등 측면에서 갈등감소전략이나 시간관리전략들을 개발하는데 머물렀다면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생활설계측면에서 일-가정 균형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